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군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이주일의 말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 8장7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신문사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대표전화 552-8200, 552-2925

창간사

교육, 선교, 구제의 세 기둥을 세워 민족과 시대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며 방황하는

도처에 흩어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수 없이 맺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겸양 까닭에 지금까지 충현은 사회 일각으로부터 원치 않는 눈총을 받아왔다는 것도 인정한다. 금번 「주간충현」을 창간하게 된것은 우리의 수고를 자랑하거나 나타내고자 함도 아니요 결코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함도 아니다. 오

리가 매장될 수 없다는 말씀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엎드려 땅에 글을 쓰시던 주님께서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모르나 말로 해야 할 것이 있고 글로 써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교회 내에 주간 신문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주간 충현은 성도간의 교제도 두텁게 만들 것이다. 교회



복음 증거되는 일에 도움 되길

함께 은혜 나누고 교회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
성도간의 교제도 두텁게 만들어보자

역사의 향도자로서 머리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충현교회는 '이 복음을 위하여' 일하기로 올해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충현은 그리스도 제자 된 모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도록 힘쓸 것이며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역이 집중될 것이다.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충현의 가족들이

직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자랑이던 자랑이라도 했어야 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숨겨진 충현의 미담들을 캐내어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회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자는 데 있는 것이다. 진리는 나타나야 하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외칠 것이라고 하심은 진

의 대소사는 물론 각종 분회들과 성도 개개인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만이 아니고 함께 열려하고 알려져야 할 일들이 「주간충현」을 통해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주간충현」의 또하나의 자랑은 모든 봉사자들이 자원하여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명실공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로 이루어진 신문이므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

운 신문이 될 것이다.

이 신문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약속된 은혜와 사랑이 계속 넘치게 임하시기를 기원한다.

1989. 3.

위임목사 이종윤

3월 첫주부터 예배순서 일부변경

입례송 · 예배에의 부름 · 화답송 · 성시교독 · 봉헌송 삽입

본교회는 3월 첫주부터 주일예배(1부~4부) 순서를 일부 변경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위임목사와 예배위원회, 그리고 당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예배순서는 종래의 예배순서를 전체적으로 살리면서 하나님께 더욱 아름답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입례송, 예배에의 부름, 화답송, 성시교독, 봉헌송을 삽입하기로 된 것이다.

예배순서 전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찬양과 성도의 교제와, 헌금, 새가족 환영을 앞부분으로 올리고 설교를 뒷부분으로 합과 동시 축도로 메시지 여운을 잊지 않도록 배려한 점이 특색이다.

새롭게 짜여진 예배 내용을 순서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입례송/찬양대, ② 찬송(9장)/다함께,
- ③ 예배에의 부름/사회자, ④ 화답송/찬양대,
- ⑤ 기원/사회자, ⑥ 신앙고백/다함께,
- ⑦ 성시교독/다함께, ⑧ 송영(2장)/다함께,
- ⑨ 기도/담당장로, ⑩ 찬송/다함께, ⑪ 성경봉독/사회자,
- ⑫ 성도의 교제/사회자, ⑬ 헌금/다함께, ⑭ 봉헌송(70장)/다함께, ⑮ 봉헌기도/이종윤목사,
- ⑯ 찬양/찬양대, ⑰ 새가족환영/다함께, ⑱ 설교/이종윤목사, ⑲ 찬송/다함께, ⑳ 축도/설교자, ㉑ 주기도송/다함께.

법조인 선교회 창립총회
3월5일 선교관 405호실

충현교회 법조인 선교회 창립총회가 3월

5일 오후1시 선교관 405호실에서 개최된다. 변호사 등 7명의 법조인들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되는 동 선교회에 해당되는 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아담 성경반 개설
3월 10일부터 새벽 6시30분

아담반 성경공부가 오는 3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 새벽6:30-7:30분 베다니홀에서 갖는다.

본교회 남성도들은 모두 수강대상이며 성경과목은 창세기이다.

강사는 이종윤목사이며, 원서 접수기간은 3월 10일까지 등록비 2천원을 성경연구원(소색관 103호)에 제출하면 된다.

89년도 춘계 심포지움

「개인 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 주제
3월 9~11일 청년2부 주최로

교회학교 청년2부(부장/손경수장로)는 89년도 춘계 심포지움을 오는 9일(목)부터 11

일(토)까지 소색관 414호실에서 개최한다.

「개인 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란 주제로 개최될 동 심포지움에서는 주제발표와 무발제가 있고, 질의응답과 강령 등이 있을 예정이다.

충현 새가족 환영회

3월 5일 오후2 시30분 선교관 지하식당서

본교회는 첫번째 충현 새가족 환영회를 3월 5일 오후2시30분 선교관 지하식당에서 갖는다.

교육위원회가 주최하고 새신자부(부장/강순용장로)가 주관하는 새가족 환영회는 89년 1월~2월 말일까지 본교회에 등록한 신

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개인 경건생활의 효과적 운영방법」을 정삼지목사(제자교회)가 「공동체 생명력 회복의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옥성석목사(사랑의교회)가 각각 맡아 주제 발표를 하게된다.

주간충현

본 신문의 「제자」는 월간목회 사장인 박종규목사가 친히 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입교인 6백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1부 이종윤 위임목사의 폐식사가 있고, 교회가 정정껏 마련한 식사, 그리고 기념품(선물)에 전달되며, 특별 신앙간증으로 나연숙집사(할렐루야교회)의 간증이 있게된다.

본교회 주관 한국교회 성장연구원에 초교파적으로 목회자 1천명 등록

영적충만 · 목회자 소명의식 고취 현대교회의 목회방향 조명

현대교회의 목회방향을 조명해주고, 목회자의 목회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한국교회성장연구원(원장 이종윤목사)이 지난 2월 13일 개원되어 한국교회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미 세계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교회답게 성장시키고, 사회와 민족앞에 책임있는 교회가 되기위해서는 목회자의 소명의식 고취, 영적충만, 그리고 지도력 개발이 시급함을 감안, 충현교회가 이 일을 감당케 된 것이다.

전국의 목회자가 수강대상인 제1회 목회자 세미나엔 960명이 등록했으며, 매주 월요일마다 오후2시부터 5시20분까지 90분간의 2교시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참석자를 교단별로 분류하면 장로교가 67.6%, 감리교 8.3%, 침례교 4.6%, 성결교 4.5%, 순복음 4%, 구세군1%, 그리고 기타 군소교단 10%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54.2%, 경기도 32.7%, 강원도 2.9%, 충청도 6.9%, 경상도 1.5%, 전라도 1.8%로 분류되었다.

직분별로는 목사가 74.6%로 가장 많고, 강도사 3.9%, 남전도사 13.5%, 여전도사 3.2%, 기타 4.8%이다.

제1학기 세미나 주제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 성경적 교회성장원리(이종윤목사 · 충현교회) ▲ 설교의 위기와 그 대책(정장복 교수 · 장로회신학대학) ▲ 변하는 사회속에서 도전받는 목회자상(손봉호교수 · 서울대학교 교수) ▲ 구역성장의 이론과 실제(이광선목사 · 신일교회) ▲ 성령은사가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박찬섭목사 · 영문교회) ▲ 부흥회가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만신목사 · 중앙성결교회) ▲ 현대선교의 동향과 전략(이동주교수 · 합동신학원) ▲ 교회성장과 성경공부(박종순목사 · 충신교회) ▲ 교회성장과 기도목회(나선철목사 · 흥광교회) ▲ 교회의 사회봉사(손종세목사 · 한국선명회 협력국장) ▲ 교회성장과 예배갱신(정규남목사 · 아세아연합신학원)

충현교회 장로회 간사장에 김은호 장로

충현교회 천목단체인 장로회는 지난 1월 8일 오후 5시 당회원 휴게실에서 89년도 총회를 열어 새로운 간사장에 김은호 장로를 선출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동 총회에서는 89년도 표어로 「믿는자에게 본이되자」로 정하고, 주제성구로 딤펢 4장12절, 그리고 주제찬송으로 347장(겸손히 주를 섬길 때)으로 확정했다.

사업계획으로는 매주 금요일 성경공부(아담반참석), 월례회의(셋째주일 오후5시), 수양회(8월14-15일), 특강(년2회), 생일축하(회원), 공로장로 인사, 경조위원 등의 계획



▲ 본교회주관 한국교회 성장연구원에 초교파적으로 목회자 1천여 명이 참석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다.

을 수립하여 실행키로 했다.

장로회는 민주화방식에 따라 처음으로 후보공천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간사장에

김은호장로를 선출했다.

새로 선임된 간사명단은 다음과 같다. 우기전장로, 노광 현장로, 강은원장로,

“교세확장에 전 교구가 진력키로” 교역자 · 교구위원 간담회에서 의견 집약

교구위원회(위원장/우기전장로)는 지난 2월27일 오후7시 교역자 · 교구위원 연석 간담회를 갖고 교세 확장에 전 교구가 진력키로 의견을 집약하는 한편 89년 목표 1만 세대 2만명 장년 성도 출석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14개교구 교구장 및 지도교역자(목사 · 여전도사)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1부 예배를 교구위 부위원장 손동운장로 사회로 진행, 이세열목사(교구위지도)의 기도, 이종윤위임목사의 성경 례 1:11~14절 봉독후, 「복음의 빛진자가 되어 교구와 구역을 돌볼 것」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예배이후 간담회에서는 교역자 분리심방제 회 연구가 발표되었고, 교구별 전도상실시, 합리적인 교구관리, 그리고 구역보고서 활용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동 간담회에서 집약된 건설적 사업계획은 당회의 심의와 결정을 통해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교회학교 소식

◎ 영아부(부장/차신득장로)는 지난 2월28일~3월1일까지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겨울성경학교를 가졌다. 강사는 김연이전도사.

◎ 유치부(부장/정광호장로)는 제20회 겨울성경학교를 지난 2월27일~3월1일까지 「하나님의 자녀」란 주제로 가졌다.



▲ 지난 2월 27일 선교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교역자 · 교구위원 간담회 광경

◎ 유년부(부장/윤성철장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란 주제로 지난 2월27일~3월1일까지 겨울성경학교를 가졌다. 강사는 김경성전도사.

◎ 초등부(부장/최성현장로)는 「예수님을 본받는 어린이」란 주제로 2월27일~3월1일까지 겨울성경학교를 가졌다. 강사는 양참근 전도사.

◎ 소년부(부장/노문환장로)는 「말씀을 사랑받는 어린이」란 주제로 2월27일~3월1일까지 겨울성경학교를 가졌다. 강사는 김장근목사.

◎ 사랑부(부장/이종석장로)는 제1회 겨울성경학교를 「하나님의 사랑」이란 주제로

3월 1일 가졌다. ◎ 에바다부(부장/박인세장로)는 제1회 겨울성경학교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주제로 2월27일~28일 가졌다. 강사는 강주해목사.

◎ 직전부(부장/박영식장로)는 제13회 동기수양회를 2월25일~26일까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는 주제로 가졌다. 강사는 송태근목사, 장혜순전도사.

◎ 청년1부(부장/윤광일장로)는 제1회 동기수양회를 2월28일~3월1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보라! 새것이 되었다”란 주제로 가졌다. 강사는 김익경목사.

위하여 기도를

원로목사 동정

★ 원로목사 김창인 목사는 지난해(88년12월) 도미하셔서 미국 전역의 교회를 순회하며 말씀증거에 분주하시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온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위임목사 동정

★ 이종윤위임목사는 본교회 「한국교회 성장연구원」이 주관하는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 주강사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10분부터 90분간 잘릴리홀에서 강의한다.

★ 2월 28일 숭실고등학교 신학년도 준비를 위한 교사연수회에서 「21세기를 향한 기독교학교」라는 제목의 주제강연을 가졌다.

★ 2월 21일(화) 저녁부터 22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박선희 · 김명혁 · 김준곤 · 옥한흠 · 정진경 · 한제호목사 및 손봉호장로와 함께 철야기도회를 가졌다.

★ 2월 24일(금) 오전8시부터 본교회 선교관 회의실에서 이한빈 · 이영덕 · 은준관박사를 초청인사로 현대교회 교육비평회를 가졌다.

★ 지난 2월 20일 본교회를 내방한 로잔대회 총무인 「토마스 왕」의 목회자 세미나 특별강의의 통역을 맡아 수고했다.

송환장장로, 박영식장로, 이종국장로

『주간충현』 창간 각위원장의 축하 메시지

- ...「주간충현」 창간에 각위원장과 두분의...•
- ...목사께서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 ...한결같이 「주간충현」의 창간에 축하한다...•
- ...고 전하고 이 신문을 통하여 성도간의...•
- ...깊은 교제와 사랑이 넘치기를 기원하고...•
- ...있다. 원고 도착순으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눈과 입과 거울이 되도록”
윤명식
(장로·당회서기·편집인)



「주간충현」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새예배당 완공과 헌당 이후 교회발전과 삼대목표(천국일

군양성, 만민에게 복음전도, 빈약한자 구제)에 준한 효과적 홍보수행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주간충현」에 큰 기대와 기도의 후원을 보낸다.

특히 신문발행 자체가 자원봉사에 의해 진행되는 「주간충현」이 성도간의 교제, 친목, 화평을 도모하는 한편 프렌트미디어를 통한 간접복음화를 달성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주간충현」은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눈과 입과 거울이 되어 모두가 알고,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는 사랑의 휴게실이 되기를 원하며, 내뿜어줄 아끼는 가장 좋은 신문이 되기를 원한다.
편집내용도 일률적인 내용보다는 다양성 있게 주간에 일어났던 각종 교회소식들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면서 신앙미담, 이단, 사이비종파 식별법, 신앙간증문, 전도체험기 그리고 특수 직업인의 복음화 전략 성공사례 등이 꼭 실려야 하고, 읽히도록 문장도 세련되게 다듬어야 할 줄 믿는다. 바라기는 충현성도 모두에게 사랑받는 「주간충현」이 되기를 바란다.

충분한 교육여건 내지는 환경, 그리고 재정적 뒷받침의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끈기있게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며 애쓰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무어라 위로해 드려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따라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사역하는 교사들의 헌신적 봉사가 알려지므로 더 큰 봉사가 이루어지고, 피곤에 지쳐 잠시 헤이된 상태에서 무력해진 교사들에게 활력을 넣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육위원회 산하 24개 교회학교의 숨은 미담들이 「주간충현」에 계속 소개되기를 기대하면서 「주간충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뻐하시고 영광받으실만한 귀한 신문이 되도록 간절히 소원한다.

성도와 성도들간의 매체역할을
김기정
(장로·예배위원장)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강남원두 이곳에 아름답고 또 웅장하게 우리 충현교회당을 건축해 주셨습니다.
지난날에도 많은 사명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더욱 높이고 차원높은 새로운 이정표로 주신 것으로 생각할 때에 충현의 가족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책을 감당키 위해서는 더 많이 배우고 또 교회내의 사정들을 나름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살림이 커지고 모든 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실무를 담당할 부서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간충현」 발간

이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었기에 우리는 더욱 진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이 새시대를 더욱 풍성히 엮어나갈 수 있도록 「주간충현」을 창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김창인 원로목사님께서 굳게 다져 놓으신 충현의 터전 위에 이중운 위임목사님을 새로이 모시고 새로운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우리 충현가족의 생각과 모습들이 많이 새로워졌고 또 계속 새로워져야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갈 4:19) 해산하는 수고를 함으로써 내적 성숙을 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전 13:11)라고 고백한 사도바울과 같이 이제 좀더 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바로 이런 작업에 「주간충현」이 우리 충

프린트미디어통한 간접복음화 달성 위로하고 교제하는 사랑의 휴게실되라

“교회성숙과 발전에 이바지”
우기전
(장로·교구위원장)



우리 교회 형편으로 볼 때 성도간의 교제와 친교를 위해서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은 참으로 경하해 하지않습니다. 충현 가족 전체가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 성도와 성도들 간의 매체로 이루어질 「주간충현」 창간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도약하는 충현의 가족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교회의 사정, 성도들간의 기쁨일, 어려움일들을 아는대로 서로 기뻐하고 또 위로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폭넓은 기회가 될 것이기에 축하를 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들의 경건의 생활이 날마다 더욱 성장되기를 원

현가족들의 다리가 되고 입이 되어 서로서로써 삶을 통해 도전받게 되기를, 그리고 이로써 우리에게 맡겨준 시대적 사명과 막중한 과업들을 감당하는 데 새 힘을 공급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충현의 식구들과 또한 충현교회와 상관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기쁨이 전달될 줄을 믿습니다.
「주간충현」을 통한 성도간의 교제들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충현가족의 가장 친한 벗”
이태규
(장로·행정위원장)



할렐루야!
「주간충현」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범람하는 매스미디어의 홍수가운데에서도 정작 충현의 가족들이 알아야할 사실들을 신속·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일이 심히 난감하던 차에 「주간충현」의 창간은 목마른 사람이 샘물을 만난듯 반갑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간충현」이 호를 거듭할수록 우리 충현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신문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하며, 명실공히 충현가족의 가장 친한 벗으로 늘 읽히고, 사랑받는 신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읽는 모든 교우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신앙성숙에 질집이가 될 수 있도록 편집내용도 다양스럽고, 재미있게 엮어줄 것도 실무진에게 부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 더욱 높이고 ‘더불어’의 삶이 지면구성 되도록

“교회교육 홍보에 최선을”
오태희
(장로·교육위원장)



「주간충현」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충현교회 교회교육의 책임을 맡은 저로서는 교회가 요구하는 「이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제자육성」에 피력이나마 헌신하면서 늘 마음에 와닿는 교회교육의 홍보가 절감하던차에 「주간충현」이 발행되므로 어떤 충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사실 교회교육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교사들의 그 노고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홍보매체가 꼭 필요했는데, 이번 「주간충현」 발행이 꽤 일을 충분히 감당하리라 생각되어진다.

또 창간축하와 더불어 몇가제 부탁과 기대도 걸어본다.

교구내의 성도들의 때담, 전도체험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 등을 취재해서 취급해 주시고, 예로부터 필요없이 없어서 교회봉사하는 일꾼들도 발굴해서 일반 성도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내용도 「주간충현」에 실려주었으면 한다.

이제 시작인데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것 같지만, 천천히 기획하고, 편집하여 밝은 내용의 알찬 기사들이 넘치게 지면을 장식해 주었으면 한다.

바라기는 「주간충현」 발행이 교회성숙과 발전에 이바지해 주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합니다.
이제 「주간충현」이 거듭발행되므로 알찬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충현가족 전체에게는 주일마다 기다려지는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우리모습 대변하기를”
김은호
(장로·창도위원장)



우리는 기도의 결실로 하나님께 봉헌한 새예배당 지대를 맞게 되었고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해아리고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것 하나도 우리 하나님 간접하심 없

복음전도를 위한 도구로 사용 김준태

(목사·청년부 지도)



매일 받아보는 일간 신문속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한웅큼씩의 광고지를 받게 된다.

무슨 소식일까 궁금해서 읽어보면 시시한것들 뿐이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광고지들은 많으나 들을만한 말이 없고, 받을만한 교훈이 없다.

이러한 때에 우리 충현교회가 교회신문「주간충현」을 발간하게 된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와함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사람들은 현대를 가리켜 매스미디어의 시대라고 말한다. 지구촌의 모든 정보가 얼마나 급속히 전달되고 있는가? 이러한 과학 문명 속에서 우리 교회들도 복음전도를 위해 매스컴 문화를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아무쯏 「주간충현」은 충현가족의 친밀한 교제와 복음전도를 위한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란다.

“주님영광 위한 여론의 광장” 임광식

(장로·재정위원장)



복음과 매스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새롭게 창간되는 「주간충현」에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위임목사의 큰 관심과 온 성도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행되는 「주간충현」은 명실공히

충현교회 언론매체로서의 그 사명이 막중하다.

매주일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4부예배로 인해 성도간의 교제 결여, 새로운 신앙활동의 정보, 그리고 믿음안에서의 봉사내용들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아쉬움이 있던차에 이번 「주간충현」발행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이젠 새예배당도 하나님의 은총중에 완공되었고, 이제 앞으로 있을 남북통일문제, 시온성대행진 행사, 충현올림픽, 다 나아가서는 내년에 있을 복음주의 협의회 서울대회 등의 중요한 내용들이 「주간충현」을 통해 홍보되고, 이를 위해 전교인이 기도할 수 있는 여론의 광장이 되도록 힘써줄 것도 이번 기회에 부탁한다.

「주간충현」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원봉사하는 헌신을 볼 때 믿음직스럽다.

불신자에게 전도의 기회되길 오진국

(장로·구제위원장)



현대를 정보시대라 한다. 정보에 어두운 국가는 후진을 면치 못하며 정보에 어두운 정치인은 정적에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현대는 얼마만큼의 정보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는 정보전쟁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집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정보에 어두운 성도들이 어떻게 일치를 이루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겠는가? 신앙생활은 ‘더불어’의 삶이니 이러한 삶을 위해 교회의 속속들이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주간충현」이 시기적으로 적이나 늦게 발행되는듯한 느낌도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출간됨을 축하드리며 기뻐하는 바이다.

이 「주간충현」을 통하여 성경에 대한 지식축적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한 육구충족,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는 나눔의 장이 될 뿐 아니라 충현교회의 성장과 사역감당에 촉진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나님께는 영광, 성도에게는 유익, 많은 불신자들에게는 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발행인과 편집인, 편집국장, 모든 편집위원과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자원봉사 기자들의 노고가 100배나 열매를 맺고 그들의 삶도 풍성해지기를 소원한다.

“같은 세상에 청량한 샘터” 김익경

(목사·제11교구지도)



「주간충현」의 태동을 선포하는 마음대로 축하를 보냅니다.

충현의 새시대를 담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은근히 풍겨나는 뜨락이 되고 같은 세상에는 청량한 샘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한 주님을 사랑하는 보통 사람들의 평범하고 꾸밈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발굴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이 되고, 언론매체의 위력을 십분 발휘하여 충현의 모든 가족을 주안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충현 가족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애정 속에서 날로 알찬 내용으로 새롭게 발전하기를 원하면서 귀한 일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가 주님의 기억하신바 되기를 바랍니다.

문서선교의 절대적 필요성 윤종성

(장로·전도위원장)



우리 교회가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기에 새로이 주간충현이 창간됨은 그 역사적 의미가 참으로 크다 하겠

습니다. 오랜동안 충현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주간충현에 갖게되는 기대의 내용이 그 사명을 다하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성도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 전체 성도간의 친교가 어렵고 영적 공동체 의식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몸으로 다 못보이고 얼굴로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함께 읽고 쓰는 문서교제의 필요성은 절대적이었다고 느껴집니다. 월간 충현의 큰 역할이 바로 여기 있었다 하겠으나 월간으로 다소 아쉬웠 것인데 이제 주간충현이 창간되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둘째, 듣고 다 기억못할 말씀을 매주 주간충현에서 대하여 다시 그 뜻을 새기게 되니 이로써 각 성도의 생활이 말씀 안에 성장하는데 큰 유익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들어서 다 이해한듯한 말씀도 글로 다시 대할 때 새삼 더 깊은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은 까닭입니다.

셋째, 우리 성도 중 여러 형편으로 못나왔거나 멀리 떠나있을 때 주간충현은 같은 은혜와 위로의 재료가 될 줄 압니다. 또한 지상 설교와 간증은 전도의 기회도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주간충현을 통해 매주마다 교회와 개인의 소식을 서로 듣고 위하여 기도하고 고락을 나누며 말씀 안에 하나가 될 때 더욱 기뻐하시는 주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가정부 주관 생활법률강좌 성황

교회학교 새가정부(부장/박승준장로)는 지난 2월26일(주일) 오전11시 소석관 203호실에서 생활법을 강좌를 개최했다.

2백여 명의 성도가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는 본교회 집사인 김상철 변호사가 강의를 맡았다.

김상철집사는 신앙인으로서 가정경영에 대한 폭넓은 법률개념과 실제사례(이혼·금전대차·보증 등)를 들면서 강의에 임했는데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이 있었다.

강좌후 개인상담 5권을 처리하기도 했다.

성도의 교제

결혼

▲ 신랑 노태환(노문환장로 동생)군과 신부 박은경양의 결혼식이 3월 9일 12시30분 갈릴리움에서.

▲ 신랑 이영만군과 신부 조순혜(조금복·임영숙집사 딸)양의 결혼식이 3월 11일 오후1시 갈릴리움에서.

▲ 신랑 백성인군과 신부 김수복(김정태집사·최순영권사딸)양의 결혼식이 3월 11일 오후 2시30분 갈릴리움에서.

교회기관소개①

교구위원회

89년의 교구위원회는 할 일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새예배당을 지난해(88년 12월 20일) 완공했기 때문이다. 약 6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본당을 채우기 위해서는 교구의 활동이 그 어느때 보다 막중하기 때문이다.

금년 목표를 달성키위한 1만세대 2만명 교인으로 성장키 위해서는 14개 교구의 눈부신 활동이 필요하다.

89년 1월 7일 현재 교구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14교구, 6,035세대, 14,889명의 교인으로 나타나 있다.

구역은 704구역, 지역장 78명, 부지역장 467명, 협력구역장 303명, 구역장 704명, 권찰 755명, 그리고 간사 40명이다.

지난달에 교구활성화를 위한 교구일군교육이 끝났고, 앞으로 교구수련회, 교구별 찬송경연대회, 모범교구 시상, 교구별 교세성장 성공발표회 등의 사업계획을 짜놓고 있다.

교구위원장 우기전장로는 「구역예배의 활성화를 통하여 교구가 활성화되고, 교회가 성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구역예배 모임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일을 돕기 위해 각 교구마다 지역장,

교역자, 남·여전도회 회장으로 구성된 교구협의회가 조직되었고, 동 협의회에서는 교구내의 경조사 협력지원, 친교증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그뿐 아니라 성도들 가정의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는 액자가 선물되고, 교인 개인마다 생일당한 자에게 축하카드가 발송되는



▲ 사진은 본교회 14개 교구장들이 교구위원장과 함께

구역예배 활성화로 교구가 활성화 교구수련회·모범교구 시상도 계획

일들을 각교구가 맡게 된다.

특히 매주 금요일야기도회가 각 교구별로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예배 이후 교인들의 귀가 편의를 위해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우기전 교구위원장은 금년비전인 1만세대 2만명 교인(장년) 성장을 위해 전교구가 일심 협력하여 헌신적인 충성을 기대한다고

했다.

89년도 교구위원회 조직 및 각 교구장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우기전장로, 지도: 이세열목사, 부위원장: 손동운장로, 서기: 강은원장로, 회계: 김원선장로, 위원: 각교구장 1교구장: 오정현장로, 2교구장: 김원선장로, 3교구

장: 오진국장로, 4교구장: 이웅선장로, 5교구장: 이종국장로, 6교구장: 강순용장로, 7교구장: 강모용장로, 8교구장: 박철환장로, 9교구장: 송기홍장로, 10교구장: 강은원장로, 11교구장: 김은호장로, 12교구장: 김재명장로, 13교구장: 이창호장로, 14교구장: 마성락장로. ♥